

꽃

- 선바우 이야기 -

작 : 백하룡

- 2023년 8월 31일, 짓다.

■人物

사내 바우
나루
가래

노인 미친왕
어미
아비
소몰이 아비가 대신할 수 있다.

캐캐소여인 노래<어러리> 부르는 여자

피난민
소녀
독립군
의병
왜병
군졸
신라군
간자

1. 물가에서

수목의 산을 明鏡처럼 담은 밤의 호수다.
무동력의 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들어온다.

그물(혹은 투망)을 친다.(던진다.)
빈 그물이다.

다시 그물을 던진다.
빈 그물이다.

그저 산을 담은 물의 풍경만 파문처럼 일그러지고

사내 잉어 한 마리만 잡으면 가요.

그물을 다시 정비하며

사내 수자원 보호구역인 것도 알고요.

잠시.

사내 울 어무이가 많이 편찮으셔요.
고민하다…… 정리하고 서울서 내려왔어요.
예, 둘이요.
여가 나랑 울 어매랑 고향이에요.

진짜요.

요 아래가 구만리들이어요.
얼마나 너른 들이었다고요.
저기는 논골
또 저기는 군량골

물에 가둔다고 기억마저 사라지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고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슴이 갑갑해서

혼자 물에 와서 이렇게 떠들어요.

다시 그물을 던진다.

사내

진짜 가요.

잉어 한 마리만 잡으면

이번엔 조금 기다렸다 끌어올리게요.

요기 줄 끝에다 방울 꽂아 놓고

에고고 되다.

덜기도 덜고

웃옷을 벗고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다.

잠시, 양 겨드랑이를 가린다.

사내

양 겨드랑이에 흠이 있어요, 화상요.

어릴 적 입은 자국이라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옛날에요.

어무이가 그러대요.

남의 집 일하고 오니 제가 불장난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무이는 가난 탓이라고

가난이 흠이 되고 상처가 된 거라고

웃옷을 다시 입는다.

잉어요? 사서 멕여도 되죠. 요새 잉어 그깟 거

그런데요, 제 손으로 잡고 싶어서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손주 잡은 놈으로 고아다가……

생각해보면 어매 살던 고향 위를 날던 놈 아니겠어요.

조용한 호수의 정적을 사납게 깨트리며 방울이 시끄럽게

동시에 가마우지 떼가 시끄럽다.

사내

잡았다!

휘어이! 가마우지, 가마우지

내가 못 살지, 이놈의 가마우지.

노(장대)로 새를 쫓으며.

사내 사람을 겁을 안 내.
 저놈들이 중국 양자강 놈들이요.
 여기 황성까지 와서 쏘가리며 꺾지며 아주

그물을 당긴다.

사내 딱 봐도 잉어요.
 못해도 메타는 될 거 구만요.
 힘이, 힘이

 사투를 벌인다.
 겨우겨우 그물을 끌어 올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가마우지는 싹 종적을 감추고

사내 잡았다.

 메타는 무슨 메타도 넘겠네.

 그물을 헤집는다.
 사내 굳은 채 딱 멈추고, 잠시.

사내 사람이다!
 아니 시, 시체다.

 그물 속에서 죽은 듯 젊은 여자가

사내 119 아니지 111 아 간첩이고 112, 휴대폰
 참 몰래 갔다 온다고 안 가져 왔지.
 아이고 이 병신

 사이.

사내 정말 시체 맞아? 씨 진짜네
 무슨 시체가 마치 산 사람처럼 말콤하니
 (용기를 내 손을 뻗어)

갑자기 여자가 눈을 뜬다.

사내 으악! 누, 눈을 떴어.

여자가 천천히 일어선다.

사내 진짜 기절하겠네.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정신이 말짱한 거여.

나루 …… 바우야.

사내 몰래 카메란가.
SBS 납량특집인가.
어릴 적 소년중앙 괴기 별책부록인가.

나루 바우야.

사내 저기요 귀신인지 혼백인지
나는 바우도 돌도 자갈도 아니고
함용수예요.
룽 용, 물 수. 강릉 함씨 함용수.

저는 선량한 서울시민 아니 황성군민이고요
또 홀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으악!

여자가 몸을 움직이자 질끈 눈을 감는다.
여자는 잠시 호수 속으로 뛰어든다.
저만치에서 손짓한다.

나루 바우야……

여자, 붉은 꽃 한 송이를 물에 띄워 보내며

나루 날 기억하렴, 바우야.
나는 널 잊은 적 없는데.
꼭 한 번만 날 기억해주렴, 바우야.

너는 이제 내게로 먼 길을 가야 하네.

여자, 사라진다.

사내, 꽃을 주워들어 바라본다.

사내

이 꽃
나는 어쩐지 알 것 같아서 이 꽃
나는 어쩐지 울 것 같아서 이 꽃
이 꽃
나는 어쩐지 알 것 같아서
나는 어쩐지

어디선가 희미하게 노래가 들린다.

저 노랫소리

이놈의 배가 저절로 어디로 떠 내려가는 거지?
나는 어디로

그런데 저 노랫소리
뱃사공들 잡아먹는 사이렌도 아니고
나는 또 왜 이리 어지럽나.

물가 절벽 위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한 여인이.
캐캐소 여인이 노래한다.
노래에 사내가 잠시 잠이 든다.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감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향화춘절이 날 알려주네
우럭죽박에 능라삼팔로 나를 감지 말고
대장부 긴긴 팔로만 나를 감싸주게
오늘 갈른지 내일 갈른지 분수정망 없는데
맨드라미 줄봉숭아는 왜 심어 놓았나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붙어 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소탱그랑 소리로 미친 듯 시끄럽다.
그 소리에 사내가 잠에서 깬다.

2. 물을 거슬러 가는 길

소몰이꾼 소를 열 마리 넘게 끌고 나온다.
<소는 자전거, 빨은 자전거 핸들을 거꾸로>

사내 어르신, 어르신
소몰이 누구여?
 나 불렀소.
사내 그래요, 어르신
 여기가 어딴니까
소몰이 중금리 아닌가베.
사내 중금리요?
 댐 속에 처박힌 그 중금리요?
 그럼 여기가 물 속이라고요.
소몰이 저 사람이 술이 했나?
사내
소몰이 야 밤에 뭐 잡어. 쏘가리, 꺾지?
 쫓쫓 괴기도 한 마리도 없구만.
사내 좀 전에 제가 사람만한 잉어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
소몰이 참나 거짓부렁도
 그놈이 도리어 자네를 잡았다는 믿겼네.
 말동무가 생겼으니 연초나 한 대 태고 가야것구먼.
 얼래 연초가 왜 다 젖었대?
사내 맞잡아요. 그건 필시 여기가 물 속이니까
소몰이 자꾸 헛소리여.
 이거슨 아까 질마재 넘어오다 소낙비 만나 그런 거여.
 담배 있으면 한 대만 줘봐.
사내 저는 끊었습니다.
소몰이 팔자 좋은 가베 담배도 끊고.
사내 팔자는 어르신이.....
 왜 소가 열 마리나 되면서
소몰이 열 마리는 무슨, 잘 셔봐 열 한 마리!
사내 그래요.
소몰이 다 좋은데 내 소가 아니여.
 나는 소몰이꾼이거든.
사내 소몰이요?

소몰이 첨 듣는 표정이람?
 소장수 따로 있고 소몰이꾼 따로 있고.
 가죽잠바 입고 땀기면서 시골 어르신 등 치먹는 사람은 소장수고
 소장수가 산 소를 밤새 몰아다 우시장에 넘겨주고
 발품 값으로 게우 먹고 사는 사람은 소몰이고.

사내 그럼 어르신은 부자는 아니군요.

소몰이 (끄덕이며)
 징일 발품 팔아 얼마나 되겠어.
 영월 갔다가 홍천갔다가 정선갔다가
 박통 화전 정리로 쫓기다시피 내려와서 다섯 식구 이걸로 연명하오.

 큰딸 혼기도 짝 찾고
 물색해둔 총각도 있고 해서 이번 참엔 꼭 시집을 보내야 현계.

사내 그래 오늘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소몰이 봉평서
 상대리 하대리 거쳐서 안 왔어.
 횡성 우시장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시장이라
 해방 전에는 조선 3대 우시장이라고
 북으로 평양 우시장, 남으로 경상도 김천의 지례우시장
 그리고 여기 강원도 횡성 우시장

사내 아무튼 그 멀리서
 열 마리나 몰고 쉽지 않았겠어요.

소몰이 열 한 마리라니까.
 찌간해서 잘 안 보이나 본데 송아지도 한 마리 있어.

사내 아닌데 암만 봐도 열 마리.
 하나, 둘, 서이…… 열. 열하나…… 열.

사내 봐요, 열이죠.

소몰이 하나, 둘, 셋…… 열.
 아이고 이걸 어떡해.
 참말로 큰일 났네.
 어쩐지 아까부터 어미 소가 그래 울어 찼더니

 소몰이 소를 몰고 왔던 길을 되돌아.

소몰이 혹시라도 가다 송아지 한 마리 보면
 알지.

사내 그렇게요.

소몰이 진짜로 약속하오.

송아지지만 탕그랑도 달아 났어.
 사내 네, 흑시라도 보게 되면 꼭 어르신 찾아 드리리다.
 소몰이 고맙소.
 송아지래도 어지간한 집 1년 농사보다 더한데
 게다가 내 소도 아니요.
 우리 딸 시집은 고사하고 온 가족 굶어 죽소.
 사내 꼭 약속할게요.

소 방울 소리만 여운처럼 남기며 소몰이 퇴장한다.
 캐캐소 여인 노래한다.

사내 또 이 노랫소리
 홀리듯 이 노랫소리

멀리 노인이 보인다.
 하얗게 머리가 새어 버린 노인.
 풀어헤친 머리가 슬프고 또 무섭다.
 갑옷을 벗어 강물로 씻는다.

사내 물이 피네.
 온통 핏빛이네.

강가로 피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머리에 이고 지고.

사내 저 사람들의 행렬이 다 무어야?
 저기요,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피난민 난리요.

사내 난리?

피난민 아이고 말도 마요.

인공군들이 새까맣게 내려와 서리

사내 인공군요?

피난민 북한 공산군요.

총각인지 아재인지도 어서 피하시오.

사내 그래 어디로 갑니까.

피난민 우리는 서원면 굴아홉골로 가요.

동학란 임진란도 피한 십이지지 아니요.

총각도 살려면 어서 피난 가시오.

총소리.

사내 노를 급하게 저어 달아난다.

노인 비애다
 비애로구나

 너 회한이여
 너 울분이여

노인, 갑옷을 씻는다.
사내 강물에 손을, 확인한다.

사내 다시 물이 피네.
 또 온통 핏빛이네.

시체(인형)가 떠내려온다.

사내 떠내려오는 저것들 시체 아니야!

강가의 소녀를 발견하고.

사내 학생, 거기서 무얼 하오.
 또 여긴 어디요.
소녀 1919년이요, 4월 1일이요
 강원도요.
 강원도 횡성이요.

만세를 부르오.
독립만세를 부르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오.

대한독립만세.

총소리.
소녀가 사라진다.
혹은 침병 물속으로 떨어진다.
손을 뻗어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다.

노인, 갑옷의 피를 씻는다.

노인 비애다
 비애로다
사내 점점 강물은 피가 되네
 점점 핏물은 질어만 지네
 오를수록 붉네
 오를수록 붉어만 지네

쫓기는 듯 독립군 강가로 나온다.
갈증에 피에 절은 강물을 마신다.
최후를 예감한 듯.

독립군 나 민공호는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다.
 일제가 우리 대한의 군대를 해산하려 하니 분개하였다.
 나라에 병사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나라라 할 수 있겠는가?
 군대를 거두라는 명령에 나는 절대 순종할 수 없구나.

의병을 조직하여 나는 저항하였다.
의병과 더불어 나는 싸우고 또 싸웠다.

하지만 울분이여
일천구백공팔년 이른 봄 나의 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나는 쫓기는 한 마리 노루나 고라니나 같거니
이제 여기 강원도 첩첩산중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비애로다
회한이여

자결하여 물속으로 떨어진다.

사내 이 배는 슬픔의 강을 거스르는 배인가
 피는 조금도 묻어지지 않네
 오를수록 붉어만 지네

노인, 다시 갑옷을 씻는다.

사내 저 멀리 저 노인
 저 노인이 갑옷을 씻을 때마다

피는 붉네, 붉어만 지네

하얀 옷의 의병들 강가로 내쫓긴다.

의병 우리는 임진년 왜란을 맞아 황성땅에서 봉기한 의병이다.
의병들 개똥이고 소똥이고 무명씨고 이름조차 없는 우리들
의병 안반대골에서 매복을 하여 몰려오는 왜병을 섬멸하려 하였구나.
의병들 경계를 보던 어느 밤에
의병 노오랑게 익은 콩밭을 왜병들의 노란 복장으로 착각하여
 조총을 한 발 쏘았구나.
의병들 애통하여라
 우리는 전멸하는구나.
의병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 쫓기다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의병들 원통하여라
 개똥이고 소똥이고 무명씨고 이름조차 없는 우리들

조총 소리, 의병들이 전멸한다.

사내 거슬러 오를수록 점점 붉네
 거슬러 오를수록 점점 짙네
 또렷해지네
 오롯해지네
 선명해지네
노인 비애다
 비애로구나

 너 회한이여
 너 울분이여

배가 노인에게 다다른다.

3. 미친 왕을 만나다

노인 바우야
사내 저는 바우가 아니지만
노인 바우야
사내 저를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또 저를 그렇게 부른 사람이 있긴 했지요.
노인 바우야
 나는 너를 오래 기다렸다.
사내 저를 기다려요?

아, 그럼 영감님은 아실 것 같으니
하나만 묻습니다.

저는 이 꽃의 연유를 묻습니다.
이 붉은 꽃이 어디에서 기원하는지를

 꽃을 따라 왔는데
 꽃은 종적 없고 강물만 피처럼 붉습니다.
노인 나를 그 배에 태워다오.
사내 저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많은 사람을 지나며 거슬러 왔습니다.
 그 종말에서도 그 슬픈 막장에서도
 그 누구도 이 배에 태워달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인 바우야, 무엇을 의심하느냐.
 너는 그 꽃의 연유를 알고 싶지 않느냐.
사내

사내, 결심한 듯 노인을 배에 태워준다.

캐캐소여인 비린내
 비린내
 피비린내

 바우야

바우야
피에 젖겠다.
저 늙은이로 피에 젖겠다.
사내 저 절벽의 여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노인, 시위를 걸어 화살을 쏜다.

노인 바우야
캐캐소 절벽의 저 요물의 말을 믿느냐.
바람 불고 비 오면 저 절벽 위로 나타나
길 가는 나그네나 흘리는 저런 요사스런 말을 믿느냐.

바우야 귀를 막아라
저 여자는 그 옛날 강릉 부임 원님 따라 서울 가려다
저 절벽 소에서 원님이 저 여자를 버려두고 가니
몸을 던져 죽은 원혼이노니

바우야 귀를 막아라
네 의지가 흔들리지 말게
네 결심이 흔들리지 말게
이 쑥을 이겨 네 두 귀에 박아라.

사내, 쑥으로 귀를 막는다.
노인을 태우고 배가 간다.

노인 우직하구나, 바우야

나는 다시 병지방으로 간다
산으로 뒤편으로 흩어져 있는 화전민들을 찾아
병사를 모으고, 세금을 걷고, 병문안에 성채를 짓고
이 원한, 이 원통을 복수하리니

노를 저어라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직한 바우야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캐캐소 여인.

캐캐소여인 가여운 바우야
 미련한 바우야
 닳고 닳은 노인네의 의리란
 원한과 복수만이 전부인 왕의 의리란

바우야
 가여운 바우야

노래 부른다.

맨드라미 줄봉숭아는 왜 심어놓았나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붙어 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기가 태어나 첫울음 소리, 멀리서.

4. 장수바우와 용마발굽바우 전설에 대하여

나무피로 열기설기 이은 너와집.
 마루에 앉아 오래 하늘만 바라보던 두 사람.

어미 …… 여보
 아비 …… 응
 어미 …… 그게 우리 애가요
 아비 췌, …… 그래 나도 알아
 어미 알아요?
 아비 봤어
 아침에 나도 봤어.
 들에 갔다, 방에 들어갔더니.
 어미 난 지 삼칠일이요.
 천정에 뛰어올라 깔깔
 아비 췌
 누가 들을라
 어미 옆집이 알아요.

옆집에 옆집이 알아요.
온 마을에 이미 소문이
우리 집에 장사가 났다고.
아비 누구는 장사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어미 또 누구는 장차 세상을 크게 놀랄 킬 인물이라고
아비 또 누구는 역적이 된다고
어미 어떡해요.
결혼 한지 이십년 만에 얻은 아기
천지신명께 지극정성 몇 달을 빌고 빌어 얻은 우리 아기

방안이 조용하다.

아비 갑자기 방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어미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미,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아비 왜 무슨 일이야?
어미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아비 (들어가려)
어미 (잡는다.) 날, 날개가 돋았어요.
양 겨드랑이에.
그리고 깔깔거리며 하늘을 날아요.
아비 (주저앉는다.)
어미 여보.
아비 도사님 말이 맞았소.
우리 집에 큰 인물이 났으나 그 아기 때문에 집안이 멸족을 당하고
우리 마을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 고을도 역적의 고을이 되고
어미 우리 아들이 정말 역적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비 장사가 되고
장수가 되고
영웅이 되고
그리고 용상에 앉는대.
어미 용상요?
아비 왕이 된대.
어미 장수가 나면 용마도 온다고
용마는 나지 않았잖아요.

아비 어젯밤
 어미 아니요.
 아니예요.
 여우 소리요.
 소울음 소리요.
 그 소리 허깨비요, 툇제비요.
 아비
 어미 당신 무슨 생각 하는 거예요.

아비, 자루 하나를 가져온다.

어미 그게 뭐예요.
 아비 팔
 어미 그러니까
 팔 서말이 왜 왜 당신 손에 들려 있냐고요.
 아비 이 방법밖에 없어.
 어미 (뺨으려)
 어떻게 얻은 자식인 줄 당신이 더 잘 알지.
 안돼요.
 안돼
 누가 이 첩첩산중의 일을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 누구도 모르지.
 아비 이미 동네 사람들이
 어미 아뇨, 아니예요.
 산새나 알지, 부엉이나 알지, 귀뚜리나, 뱀이나, 굼벵이나
 잠자리나, 매미나 알지.
 찔레나 싱아나 머루나 다래나 알지.
 수수거나 기장이거나 피거나 콩이거나 알지.
 예, 여보.
 아비 관군이 오면
 장정이거나 젊은이거나 처녀거나 소녀거나
 노인이거나 애기거나
 썰고 베고 찌르고 자르고
 피는 넘쳐
 내가 되고
 개천이 되고

어미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내가 할게요!

어미, 부엌에 뛰쳐 들어갔다가 달군 인두를 가져오며

어미 달군 인두요
 날개만 없으면
 그러니 여보
 목숨만은 살립시다.
 알겠죠, 여보.

어미, 방으로 들어간다.

소리 (비명) 엄마!

어미, 방 안에서 나온다. 힘이 하나도 없다.

어미 이젠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 여보……

용마가 운다.

아비 용마다.
 (살핀다.)
 집 뒷산 언덕에서 미친 듯 운다.
어미 여보…

아비 (팔 자루를 들고 방으로 가려)
어미 (가로막으며) 여보
아비 (뿌리치고 기어코 들어간다.)

방에서 나온다.

아비 관에 갈 거야, 고변을 하러
 우리 집에서 장수가 났지만 이 손으로
 아비와 어미가 자기 자식을 이 손으로
 팔 서 말을 올려놓아 이 손으로……

아비, 퇴장한다.

소리 (방 안에서 낮게) 엄…………마……!

어미, 방에 들어가 아기를 꺼내 안고 나온다.

어미 바우야
내가 어떻게 너를 잃어.
이곳이 첩첩산중이라지만 더 첩첩산중으로 갈 거야.
이곳이 하늘 아래 두 번째 동네라면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로 갈 거야.

고비나 고사리나 꺾어 먹을지라도
다래나 으름이나 따서 먹을지라도

피 한 그릇 기장 한 사발 못 먹을지라도

어미, 도망간다.
아비 관군이랑 집으로 온다.
사라진 걸 확인한 관군이 아비의 목을 친다.
높은 산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미 여보……

바우야
너는 이제 홀어머니 슬하의 바우가 되었구나

하지만 바우야
너는 그저 찔레꽃처럼 하얗고 순하게 자라만 다오
때가 되면 너랑 딱 맞는 새악시를 맞이해서
둘이거나 셋이거나 넷이거나 아이를 원커니 낳다가
그렇게 오래오래 소박하게 행복하다가

장수도 되지 말고 왕도 되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오래오래

아기를 안고 산 속으로 더 깊은 산 속으로 도망친다.
용마가 운다.

어미 그러나 저 불길한 말 울음소리.
아무리 도망쳐도 따라오는 저 소리.

안개 속에서 사내와 노인을 태운 배가 보인다.

사내 이곳이라고요.
여기가 분명 꽃의 연유라고요.
노인 이곳에 내리면 너는 거슬러 온
모든 기억을 잊을 것이다.
소리 (산 위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바우야
사내 저 소리?
노인 무엇을 망설이느냐.
너는 꽃의 연유를 알고 싶지 않은 것이냐.

결심한 듯 사내가 침병 강기슭에 내린다.

소리 (산 위에서 여전히) 바우야
사내 어디?
소리 여기!
 그래, 여기.
 꽃 산 여기.
 꽃 진 자리 여기.

사내 소리에 이끌려 사라진다.

노인 가거라.
조만간 다시 너를 부를 테니.
다시 나의 복수를 위한 말이 될 테니.
너는 잠시 꽃에 취해 혼몽하라.

다시 왔구나
천년에 천년이 더 된 곳
울분과 회한으로 여전한 곳

5. 봄의 꽃밭에서

사내, 나루를 만나 오래 바라본다.

사내 왜일까.
 너를 만나 몹시도 기쁘고 또 슬픈 마음은.
나루 물가에서 뒹간 거야.

 뒹해. 꼭 침 보는 것처럼.
사내 너 목소리
나루 뒹야, 하루 만에 목소리마저 까먹은 거야.
 진짜 애가
 야 바우
 나 나루라고.

사내 그래 나루야.
나루 봐라. 여기 진짜 꽃 천지다.
 마치 온 산이 꽃사태라도 난 마냥.

사내 이 꽃들
 열레지며, 노루귀며, 제비꽃이며, 까치취며, 바람꽃이며, 팽이눈이며,
 현호색이며, 처녀치마며, 홀아비꽃대며, 피나물꽃이며, 박새꽃이며, 진
 달래며 또 진달래며
 이 꽃들

 이 작고 순한 것들을 바라보니
 나는 어떤 기억이 돋네.
 이곳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 기쁨들, 슬픔들
 현재와 과거 또 미래들

 어쩐지 나는 이 생을 한번은 산 것만 같네.
나루 (진달래꽃을 따며)
 오늘은 삼월 삼짇날
 뗏돼지 비계에 수수가루, 진달래 지저 꽃놀이하는 날

 이뿐 나루랑
 착한 내 바우랑, 어깨가 넓은 우리 바우랑
 또 송아지처럼 눈이 큰 내 우리 바우랑

사내 여기다 화덕을 놓을까?
나루 (담썩 안으며) 아무렴 마음대로 하려무나 내 바우야
사내 누가 본다.
나루 보라지.

 왜 진달래는 참꽃이고 철쭉은 개꽃일까나.
사내 먹어서 좋으니까 참꽃이고 먹어서 죽으니까 개꽃이지
나루 오호!
사내 그래도 조심해야 할 꺾.
 진달래꽃 그늘 아래에 선 문둥이가
 생간을 먹으려 문둥이가
나루 진짜?
사내 그럼.
나루 진짜…… (꽃밭에 들기가 무섭다)
 아, 씨 사람 소심해지게

 가래가 진달래꽃 그늘에서 뛰쳐나온다.

가래 어흥!
 문둥이다.
나루 으악!

 놀란 나루가 사내에게 찰싹 안긴다.

사내 가래야 니가 여긴 왜
가래 이 산이 다 니들 거냐?
 야, 놀래라고 했지 누가 둘이 그렇게 찰싹 안기라고
나루 가래 재 맨날 음흉하게 몰래 숨어서 저런다니까.
가래 몰래 숨긴 누가 몰래 숨어.
 나도 진달래꽃 따러 왔거든.
나루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니가 무슨
사내 가래 너도 같이 화전 먹자.
가래 어허, 내가 꺾서 될까나.
 둘이 그렇고 그렇다던데 내가 괜히
나루 둘이 그렇고 그런 어떤 소문!
가래 아냐.
나루 말해.

가래 밤마다 저기 삼형제바우 귀웅소에서
 나루 봤어?
 봤냐고!
 가래 본 건 아니지만 그 쪽으로 둘이 사라지는
 나루 그래서 미행까지 했다고
 가래 뭐 어쨌든
 나루 니네 부모님 난리 쳐서 동네 소문 다 났는데 누가 몰라
 너는 울고불고
 사내 무슨 소리야?
 나루 아무 것도 아냐.
 야, 그건 내가 삼실로 베를 짜다
 가래 나도 다 들었다고
 흠어머니 모시고 사는 바우는 가난해서 절대 안 된다며
 난리난리
 나루 야 이 자식이 진짜
 가래 치겠다.
 나는 간다.
 둘이 화전 많이 해 먹어라.

가래, 도망치듯 내려간다.

나루 알잖아, 가래 저 녀석 꼭 지 이름처럼
 딱딱하고 뽀족하고, 성격
 사내 나라도 니네 부모와 같을 거야.
 어느 부모가 너처럼 이쁜 딸을
 나처럼 가난한 머슴애한테 시집 보내고 싶겠어.
 나루 또 바보 같은 소리 한다.
 나루는 나루고 부모는 부모고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살지 않아.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사내
 나루 바우야, 왜 그래
 사내 송아지 한 마리라도 살 형편만이라도 된다면
 매일매일 꼴을 몇 짐이라도 베서
 금방이라도 큰 소를 만들어서
 저 거친 화전을 몇 마지기라도 일구고
 그러면 부자가 되서 너랑나랑 또 홀로 된 내 어머니랑

나루 야 걱정 마.
 조만간 될 거니까.

 암튼 조금만 기다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화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용마가 운다.

나루 용마다.
 한동안 뜸하더니……

 그런데 그거 알아?
 너랑 있을 때마다 듣는 거
사내 그럴 리가.
나루 아무래도 우연이겠지.
 나는 저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불안하거든.
 장수가 됐건 용마가 됐건 전쟁이고 난리고

용마가 미쳐 날뛰듯이 운다.
 둥둥, 북소리.

6. 왕의 귀환

군졸<소리> 왕이시다.
 태기왕이시다.
 신라군에 쫓기다 왕이 우리 땅에 오셨도다.

노인 용마가 우는구나
 나를 반겨 용마가 우는구나.
 나는 용마가 우는 이곳에 터를 잡겠다.

성채를 짓고, 요새를 만들고,
세금을 걷고, 군사를 모으고,
군율을 짓고, 기강을 받들고
복수의 날들을 맹세하리니
기필코 다짐하리니

이제 왕의 날들이다
복수의 시간이다
전쟁이다.

함성 또 둥둥둥 복소리.

7. 홀어머니와 나와 비탈밭에서

노래, 소겨리 소리<강원도 홍천의 소 쟁기질 소리>
사내가 소처럼 앞에 서고, 늙은 어미가 뒤에 쟁기를 잡고.
그렇게 산비탈의 화전밭.

어미 바우야.
사내 네 어머니.
어미 좀 쉬었다 하자.
 네 어깨쪽지가 화롯불보다 빨강구나.
사내 절랑 괜찮아요.
 산골의 해는 짧아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그래야 수수를 뿌리고 메밀을 뿌리고

우리 어머니 홀로 되신 우리 어머니
따뜻한 기장밥 고봉으로 지어 드리고

군졸들 등장.

군졸 세금이요.
 부역이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는 군역이요.
어미 이보우, 군졸 낭반님
 방금 뭐라고 하신거우.
 배운 거 없는 까막눈이라
군졸 세금을 내시오.
 돈이거나 곡식이거나.
사내 갑자기 이 산골까지 쳐들어와 세금이라니요.

군졸 어제부로 이 땅의 주인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산이며 이 비탈이며 다 왕의 것이요.
 사내 갑자기 왕이며
 무슨 권리로 그것을 내란 거요.
 군졸 목숨을 보전해주니까.
 위로 고구려군 옆으로 백제군 또 아래로는 신라군
 또 온갖 도적이며 막아내며 목숨을 부지해주니
 세금은 당연하지.
 어미 바우야 참아라.
 그래 그 세금이란 것이 얼마나 되오.
 군졸 수수는 열 가마, 기장은 일곱 가마, 피는 여섯 가마, 조는 다섯 가마
 어미 우리 둘 일 년 농사도 그보다 적은데
 세금을 내고 나면 굶어 죽어란 소리 아니오.
 사내 이놈들 말하는 것이 갈수록 자심하네
 내 이놈들을 들어다 쫓아야 성이 풀릴 것이니

사내가 군졸 두 명을 들어 메다꽃으려
 어미가 겨우 말린다.

어미 아직 혈기방장한 자식이오.
 부디 용서하시오.
 제가 성을 쌓는 부역이라도 가겠소.
 군졸 늙은이는 소용없소.
 저 총각이 힘이 장사니 군역을 지시오.
 어미 나이 오십 넘어 낳은 외동아들이요.
 저 아이 하나 믿고 건덕 온 목숨이요.
 군졸 사흘 후에 오겠소.
 세금을 준비하든 이별을 준비하든 준비해 놓으시오.
 (사내에게)
 그 날도 오늘처럼 행패를 부렸다간
 네 어미가 무사하지 않을 거다.

군졸들 퇴장.

어미 바우야 너는 너무 걱정마라.
 내가 아랫말에 가서 사정을 하면 어떻게든
 사내 어머니 우리 사정에 어떻게 빌리겠으며
 혹여 빌린대도 고리의 장리곡식을 또 어떻게 갚겠어요.

8. 꽃의 맹세, 밤의 귀웅소에서

나루가 서성이며 기다린다.
소로 조약돌 하나 참방 떨어진다.

나루 바우야?
가래 가래다.
나루
가래 너는 어떻게 바우 밖에 모른대.
나루 왜 못난 너까지 생각해줄길 바라는 거야.
 여긴 어떤 일이니.
가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지.
나루 좋은 소식?
가래 반짝반짝 좋은 소식.
나루 그게 뭔데
가래 바우가
나루 바우가
가래 군대를 간다네!
 얼씨구 절씨구
나루 그게 좋은 소식이니.
가래 좋은 소식이지.
 바우는 이 고을에서 힘이 켈로 장사지.
 그러니 군인이 되면 필시 큰 공을 세울 거고
 큰 공을 세우면 높은 벼슬을 받을 거고
 그러면 또 포상도 받을 거고
나루 그래서 그딴 소식을 기쁘다며 뛰어와 굳이 내 앞에서 말하고 싶었니.
 너도 참 잔인하다. 나쁜 자식.
가래 나쁜 건 너네 집이고!
나루 그게 무슨 소리야.
가래 장리 곡식 좀 빌려 주십사
 바우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갑게 거절한 건 니네 부모니까.
나루
가래 그것뿐이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바우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면 알아서 하라고

협박까지 했다던데?
왜? 네가 가난한 바우에게 시집갈까 봐.

마침, 저기 바우가 오는군.
그럼 석별의 정이나 나누라고
운우의 정 말고 석별의 정
나루 (돌을 던진다.)
개자식!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사내, 나타나나.

나루 우리 도망가자.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사내 어디로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모두 전쟁터야
나루 더 깊은 산골
더 깊은 계곡
어디라도
사내 여기보다 더 깊은 산골이 어딴겠어.
그리고 뭐 먹고 살게.
나루 머루나 다래나 으름이라도
사내 봄에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는 한 해도 살지 못할 거야.
나루 안되면!
너는 나를 뜯어 먹고
나는 너를 뜯어 먹고
그렇게 살아!
사내 아름다운 너를
나루 잘생긴 너를
사내 그래도 나 때문에 그럴 순 없지.
나루 그래서 넌 전쟁터에 가겠단 거야.
사내 죽어도 세금은 낼 방도가 없고
그렇다고 군역을 피해 도망가면
내 어머니를 죽자고 못살게 굴겠지.
나루 왜 이곳에 온 거야.
온갖 흉흉한 소문만 가지고
그 왕은 저주야!

그 왕은 악몽이라고!

사내 운명은 이미 마루 밑 댕돌에까지 이르렀네.
 침 묻은 손가락으로 창호지를 뚫어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네
 탕탕 췌소리를 내며 문고릴 두드리네
 광광 문지방을 밟고 올라서네.

나루 다정했던 날들은 이제 사라지네
 행복했던 날들은 이제 멀어지네
 죽어도
 너를 기다릴 거야.

사내 그래
 나는 죽어도 네게 돌아올 거야.

나루 약속해줘.

사내 맹세해.

나루 이 절벽 위 붉은 꽃에 맹세해.

사내 이 붉은 꽃에 맹세해.

나루 그래
 이제 안아줘.
 으스러져 비명조차 숨 막히도록.

9. 바우, 장수가 되다

횡성, 병무산 또는 병문안.
 도열 된 병사들이 무술을 연마한다.
 마치 그것은 춤과 같기도 하고 화랑도의 어떤 무술 같기도 하다.

산 위에서 용마가 운다.

군졸 용마다!

군졸 어디?

군졸 저기 용마 바위에서 목을 놓아 운다.

군졸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군졸 장수를 기다리는 거야.

군졸 우리 왕을 기다리는 거야.

노인 (등장하며) 용마가 나타났다고
군졸 저기 저 바위
노인 내가 저 말을 잡겠다.

군졸들이 모두 용마에게 달려들지만 잡히지 않는다.

군졸 바람보다 날래다.
군졸 사납기는 범과 같다.
노인 용마를 찾아 이 땅에 터를 잡았더니
저 말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인가.

누가 저 말을 잡을 자 없겠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일천의 군사를 통솔할 장수로 삼겠다.

군졸들 서로서로 용마를 잡으려.

군졸 아이구구 내 갈비뼈
군졸 전쟁터가 아니라 말을 잡으려다 이 생명 다 하시겠네.
노인 다 실패했던 말인가.
저 말만 있다면 몇 천의 신라군이라도 문제없을 텐데.
사내 제가 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군졸 뭐야 갓 들어온 신병 주제에.
군졸 그러게 산골 화전민 녀석이 겁도 없이.
노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
저 용마를 잡아 길들일 수 있다면.

사내는 절벽을 가볍게 뛰어 올라간다.
처음에는 똑같이 거칠게 경계하던 말을 달랜다.

군졸 말을 다뤘다.
그것도 용마를.
노인 그 말을 끌고 오거라.
허허, 내게는 여전히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는구나.
바우야
사내 왕께서 미천한 제 이름을 어찌 알고……
노인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준마며 나의 이리며 나의 늑대다
이제 나는 너를 장수로 임명한다.

너 외에 다룰 자가 없으니 용마는 너의 말로 삼으라.
 이제 너는 선봉에 서서 적을 맞서 싸우리니
 가거라.
 가서 적의 시체로 산을 만들고
 그 피로 강을 만들어라.
 나를 따르라.
 강가에 진을 친 적을 기습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니
 진군하라.

사내

함성과 북소리.

10. 송아지

군졸, 송아지 한 마리 끌고 화전밭 비탈길로 들어온다.

*어린이용 자전거.

가래 그 송아지는 뭐요?
 군졸 예고, 그 기쁜 소식을 못 들었소?
 가래 기쁜 소식이요?
 군졸 우리 왕께서 신라군에 맞서 연전연승하고 있다는.
 가래 참으로 기쁜 소식이오.
 그런데 그거와 저 송아지가 무슨 상관이오.
 군졸 바우장군
 가래 바우장군
 군졸 이 사람아 하긴 이리 멍청하니 면제로 군대도 못 가고 여기 있겠지만
 그 선봉에 바우장군님이 계시니까지.
 가래 설마 저 화전밭의 그 바우
 군졸 장군은 왜 빼먹어. 그 바우 장군 맞소.
 바우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장수라오.
 용마를 타고 전장을 휩쓸면 신라군은 그저 썩은 수숫대와 같지.
 게다가 불사신이라니까.
 칼이나 창, 화살을 맞아도 끄덕도 없어.
 가래 정말로 가장 깊은 골 가장 높은 곳 그 외딴집의 바우 말이오?
 군졸 왜 이리 사람 말을 못 믿어.

가래 그럼 괜히 포상으로 받은 이 놈을 예까지 끌고 왔겠어.
 군졸
 우리 장군님이 용맹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효자도 그런 효자
 평생의 한이 이 송아지 한 마리라 어머니께 꼭 전해달랬나 어쩔대나

군졸, 송아지를 끌고.

가래 개죽음도 시원찮을 판에 공을 세우고 장군이 되고
 송아지를 얻고.....

어미 어머니, 바우 어머니
 누구니.
 바우 친구 가래구나.
 이 놈 좀 봐라, 송아지다.

가래 네 그 소식을 듣고 온 거 아니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어미 이 송아지가 무슨 소용일까
 내 소원은 단 하나 그저 무사하길

가래 그래서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마음도 전하고
 이번 참에 바우한테 면회를 가려고요.

어미 아이고 네가 그래 주겠니?
 위험하고 또 험한 길이라던데

가래 바우는 전쟁터에서 싸움도 하는데요 뭘

 하지만 전쟁통의 막사라
 가족이 아니면 쉬 못 들어가게 해서요.
 친어머니가 전할 물건이라도 있다면

어미 그랬구나. 안 그래도 이 옷을 전하러
 전쟁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 밤
 새 삼으로 지은 옷이란다.

가래 네, 걱정마세요.
 제가 쇠매보다 빠르고 또 안전하게 전하고 올게요.
 그리고 저도 직접 담은 들쭉술 한 병 챙겨 가려고요.

 바우어머니
 이 옷은 언젠가 외아들의 수의나 될 겁니다.

11. 밤의 장막 속에서 삼베옷을 받다

군막. 사내와 가래 한 잔씩 술을 나누며

가래 장군님, 이걸 어머니가 전해 주신
사내 삼으로 지은 옷이구나.
 이 한 벌이면 몇 천 번도 손이 더 갔을 텐데
가래 장군님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하더라는
사내 아무렴, 나 역시도 그러할 진데
 그리고 혹시 나루 소식은
 여전히 날 기다리려나
가래 당연하지요, 나루는 장군님을 그제 오매불망
사내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제 한 두 번만 더 승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적군을 몰아내고
 나루 네게 돌아갈 테니
가래 그런데 장군님
사내 가래야, 우리끼리는 말을 놓아도 된다니까
가래 나는 일개 백성이고 장군님은 큰 장수인데
사내 그 전에 우리는 한 마을서 나고 자란 오랜 친구잖아.
 귀웅소서 먹을 감고 놀던 때가 어제처럼 하단다, 난.
가래 하긴 그때 장군님이랑 천둥벌거숭이로
사내 그래 그랬지.
가래 그럴 때마다 나루가 같이 놀겠다고
 저도 빨개 벗고 놀겠다고
사내 도리어 우리가 부끄러워서 도망갔지
 그땐 선머슴애보다 더 했는데
가래 지금도 뭐 별반 차이는
 나는 아직도 여자로는 안 보인다는
사내 에이 말만 그렇지 너도 나루 좋아한 거 내 알거든.
가래 내가?
 말도 안 돼!
사내 내가 다 알지.
 몰래 잘 익은 돌배도 따다 나루한테 건네주고
가래 그건 벌레 먹은 돌배라
 놀래키려고

사내 헤헤 아삭아삭 물 많고 싱싱한 거 내가 더 잘 알지.
 어떻게 아냐고? 나루가 나한테 나눠 줘서 내가 잘 먹었거든.
 가래 그걸 너한테 나눠 줬었어?
 사내 저 봐.
 질투하면서.
 가래 질투하지 않아.

 술이나 한 잔 더 하자.
 사내 이거 이제 취하겠는데?
 가래 겨우 이 한 병에 무슨
 사내 아니 얼마만에 마시는 술인지.
 또 독한 들쭉술이라
 가래 다 이긴 전쟁 뭐가 걱정이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나루는 니 각시가 되겠지.

 나루 부모님도 더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이런 큰 장수에 포상으로 소도 받고.
 사내 송아지.
 가래 내 눈엔 소로 보이던 걸.
 사내 아 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 송아지를 얼린 키워 밭도 갈고
 가래 불사신인 바우 장군이 있는데 이제 끝이지 뭐.
 소문에 전장에서 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싸운다더라
 사내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어머니랑 나랑 나루랑 살고 싶어서
 가래 당연하지.
 이미 너는 승리자야.
 그래 너는 항상 승리자였어.
 어릴 때부터 너는 그랬어.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 생기고 모두가 좋아하고
 군대에 오자마자 장군이 됐고
 전쟁을 하면 맨날 승리하고

 그런 네 옆에 있으면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패배자가 되기도 하겠지.
 사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가래 아니야 그냥 아무 소리도 아니야.
 그런데 바우야
 소문에 너는 칼로도, 창으로도 활로도 죽일 수 없다던데.

사내 …… 그럴 리가.
 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

가래 네가 무슨 단점이 있어.

사내 가래야.
 아니다.

가래 거봐 넌 그 어떤 단점도 없어.
 그리고 나 같은 패배자랑은 다르지.

사내 (상의를 벗는다.)
 여기, 이게 보이니.

가래 화상 자국이구나?
 어릴 때 먹 감을 땀 못 봤던 거 같은데

사내 그때는 니가 나를 진짜로 좋아했나 보지.

 그래, 아무튼 흉터야.
 내 어머니가 나를 지진 자국
 인두로 내 날개를 으깬 자국.

가래 …… (지진 자국을 만져보려고 손을)
 이게 네 약점이라고.

사내 취한다.
 나루에게 꼭 전해 주렴.
 곧 돌아간다고

 아마 이번 전투가 마지막일 거야.
 이 전투가 끝나면 신라군은 전의를 잃고 물러갈 거야.

12. 기다림

나루, 절벽 앞에서 정한수 놓고 치성을 드린다.
 <축문 같은 걸 읽을 수도>

나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바우 내 낭군 무사귀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동방청제장군 내조아 남방적제장군 내조아
서방백제장군 내조아 북방흑제장군 내조아
중앙황제장군 내조아

일체 신령님들 남도당 여도당 남부근 여부근
산신군웅 살룡군웅 백마군웅 도당군웅 부근군웅
도당신장 부근신장 오방신장 도당대감 부근대감
부근용왕 부근선왕 안토지신 후토신령 산신권속일체 제위 신령님네들

세세 찰지를 하옵소사.

한웅 천황님이 태백신단수, 아래로 강림하실적에
사천왕문 열으시고 사선왕문 열으시어 나라로는 국사선왕 마련하고
도에는 도선왕 마련하고 면면촌촌 골골에 골맥이 선왕 마련하여
인간구제 하시던 선왕님

세세 찰지를 하옵소사.

멀리서 가래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가래

너는 언제나 바우, 바우, 바우 뿐이구나
하지만 너는 아니
그럴수록 나는 바우가 미워졌다는 것을
죽고 싶도록
죽이고 싶도록

간자가 보내는 울빼미나 부엉이 소리.
가래가 그 소리를 신호로 움직인다.

12.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간자 이것은 순금으로 만든 알이요.

가래, 달걀 크기의 그것을 바라본다.

가래 소문에 당신네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더니, 금궤조차……

간자 정말로 우리 대왕은 황금 궤짝에 담긴 거대한 알에서 나오셨소.

가래 왜 머리에 닭벼슬이나 같은 것도 있소?

간자 (칼을 꺼내) 우리 대왕의 용안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가래 워워 진정하시오.

신라 사람들은 다 다혈질이라더니

간자 (칼을 거두어들인다.)

가래 내 이름이 왜 가래인 줄 아시오?

저 산으로 뻗뻗한 가래나무의 가래가 내 가래요.

그 뻗죽함은 창끝과 같고

그 여물기가 돌이나 같은 그 가래 열매 말이요.

간자 당신 이름 따윈 관심 없소.

가래 하긴 바우만 관심이 있지.

바우는 나의 오랜 친구요.

간자 그것도 관심 없소.

오래되었건 얼마 되지 않았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자의 약점이요.

가래 내 친구는 전쟁의 신이요.

그는 불사신이지.

그 어디를 찔러도 죽지 않아.

간자 소문처럼 진짜 사람이 아니란 소리요?

가래 사람이요.

간자 그렇다면 불멸은 아니지.

그래서 그의 약점은

가래 ……

간자 (순금의 알을 하나씩 건네며)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가래 겨드랑이요.

인두로 지진 큰 흉터가 있는 양 옆의 겨드랑이

원래는 날개가 있어야 할 그곳.
간자 칼이든 창이든 화살이든 무엇이든 그곳에 박아 넣으면
가래 내 친구 바우도 죽소.
이제 금궤를 주시오.
간자 약점이 있어도 죽일 수가 없는데
가래 무슨 소리요
간자 용마.
그 말은 화살보다 더 빠르오.
용마를 타고 바람처럼 날뛰는데
어느 틈에 거드랑이에 칼을 박겠소.

이 황금은 다시 가져가야겠소.
죽일 수 없는 약점이란 아무 의미가 없지.

간자, 가려 한다.

가래 전설이 바우를 죽일 것이오.
간자
가래 용마를 얻은 장수는 왕이 된다는
용마를 얻은 장수란 결국 역적이 된다는 그 전설.
간자 오호라.....
가래 왕과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 한들
그 전설을 듣고도 가깝겠소.
간자 이간하는 소문을 만들어 최소한 용마와 떼 놓을 수만 있다면.
천금을 들여서라도 이간하는 소문을 내야겠군.
가래 약속은 지키시오.
바우와 태기왕을 죽이고 나면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어디선가 용마가 운다.

14. 맹세도 육신도 소문 앞에 찢어지고

노인 피에 절은 갑옷을 개천에 씻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날로 성을 쌓고, 군사를 늘리고, 정한 군율로 훈련하여
 열 번의 전투에서 열 번을 승리하였도다.

 이제 최후의 전쟁이다.

 범이 마지막 급소를 노리듯
 신라군을 끝장 낼
 마지막 단 한 번의 전투만이 남았노니

 바우장군.

사내 예.

노인 그대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없었다.
 그대가 모든 병사들을 지휘하여 진격하여 주게.

사내 분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노인 단!

 바우장군

사내 예.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노인 용마와 함께 할 수는 없다.

사내 용마는 나와 한 몸, 저의 갑옷, 저의 칼, 저의 창과 같나니
 어찌 용마 없이 싸우라 이르십니까.

노인 모르는 바 아니나
 불길한 소문이 산중으로 가득하고
 그대의 충절 또한 모르는 바 아니나
 흉흉한 소문은 이미 군막으로 가득하다.

 그대는 전쟁의 신
 칼도 창도 활도 뚫지 못한 불사신 아닌가.
 이미 기세가 꺾인 신라군이니
 용마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용마는 저 아름드리 나무에 묶어 놓아라.
사내 왕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병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은 자다.
나의 사랑 또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전투다.
이 전투를 끝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부모에게로 자식에게로 처자에게로
돌아가자.

진격하라.

병사들의 함성.

신라군 열명이 죽어도, 백명이 죽어도 바우장군만 공격하라.
저 자의 겨드랑이 인두로 지진 화상자리만 공략하라.
사내 무수한 적을 베고 베어도 적은 내 앞으로만 나타난다.
이제는 칼을 들 힘조차 없구나.

그리고 어찌하여 적은 내 단 하나의 약점을 알았을까.

신라군의 칼과 창이 사내의 겨드랑이를 무수히 찌른다.
용마가 미쳐 날뛰듯 운다.

사내 슬픔이여
비애로다.

저어기 우리의 꽃밭은 이제 불밭이네
타오르네.
피로 붉게 타오르네
검은 연기를 내며 스러지네

나는 찢겨 지네.
산산이 찢겨 무덤도 없이 정처 없는 바람이 되네.

다시 어느 세월에 만날까.
다시 어느 세월에 돌아가마는 그 약속을 지킬까.

나루야
그리고 또
하나 밖에 없는 내 어머니.

사내가 죽는다.
신라군이 온 고을로 들이닥친다.
왕이 죽는다.
용마가 죽는다.
화전이 불탄다.
모두 죽는다.

그렇게 온 세상이 불 받아 된다.

15. 내 마음 불 탄 자리

불이 탄 자리, 황폐한 그 자리 나루.

나루 폐허다.

모두가
폐허가 되어 버렸다.

가래, 들어온다.

가래 거짓말쟁이 신라 놈들……
 왕과 바우만 죽이면 돌아간다고 해놓고선
나루 바우야……

너는 가래구나.
가래 시체라도 수습하러 온 산, 온 들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
나루
가래 그는 천 조각 만 조각이 나서
흩어져 버렸다더라.
나루 그럼 이제 이 모든 것이 바우겠구나.
이 땅, 이 나무, 이 내
바람과 구름
꽃과 산새 모두
가래 전쟁과 죽음 모두 일개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까.
그러니 나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
살아남은 자들은 자들대로
죽은 자들은 죽은 대로
나루
가래 나는 너 하나 호강시켜 줄 돈도 있고
바우 만큼 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나루 가래야
하지만 나는 알아.
음습한 네 그 마음이 한 짓을.

나루, 숨겨 둔 칼로 가래를 찌르려 하다가
칼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다.

나루 너를 추궁한들 박살 난 내 사랑은 덧댈 수 없고
너를 죽인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오지 않아
문둥이처럼 짓물러져 떨어져 나간 마음은 회복할 수 없지.

그저 폐허일 뿐.

그도 나도 어찌면 너도
실패한 모든 사랑은 폐허다.

절벽 위 여자가 노래 부른다.
나루가 홀리듯 귀웅소로 간다.

잠시.

첨병, 조용한 산골을 찢는 물소리가 들린다.

가래 나루야!

16. 꽃

산속 깊은 차갑고 질푸른 소 속에 한 여자가 죽어 있다.
하늘을 보고 눈을 부릅뜬 채
청록의 새파란 물 위에 떠 있다.

붉은 저고리 혹은 붉은 다홍치마로 여자는 물속에서 한 닢 꽃 같다.

십 년이 가고 백 년이 가도 썩지 않고
십 년이 가고 백 년이 가도 누구도 거두어 주지 않는다.

천년이 가고 또 천년이 가고
여자는 눈을 감고 이제는 죽고 싶다.

돌아오마는 약속한 사내여
그 사내의 다정하고 튼실한 두 손 만이 여자의 부릅뜬 눈을 감겨 줄 것인데

바우야……!
언제가 부터 여자는 물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바우야……!
언제가 부터 여자의 목소리는 나를 따라 강으로 호수로 흘러들었다.

바우야……!

17. 길 잃은 송아지를 만나다

귀웅소 자갈밭에 사내가 쓰러져 잠들어 있다.
타고 온 배는 뒤집어 있고.
그 옆으로는 큰 잉어 한 마리가 죽어 있다.
그때.

탱그랑……

소방울 소리가 들렸다.

탱그랑……

다시 소방울 소리가 들렸다.
송아지가 나와 사내 곁에 맴돈다.

사내가 눈을 뜬다.

사내 여기가 어디지?
 아이고 머리야.
 내가 아주 슬프고 긴 꿈을 꾸었나 보다.

탱그랑……

사내 송아지……
 송아지를 잃어버린 가난한 소몰이꾼이 있었지.

 그래 꼭 찾아준다고 했었지.
 가자, 송아지야

 왜 움직여.
 뭘 보고 있나.

 저 물 위에 빨간 저게 뭐지.
 아 꽃이구나.
 빨간 꽃이구나.

18. 꽃을 가슴에 묻다

사내가
침병 물속으로 뛰어든다.

사내 물이 얼음장만 같네.

두 손으로 꽃을 감싼다.

사내 어쩐지 이 꽃은 오래도록 나를 기다린 것만 같네

또
어쩐지 내 마음이 슬프고 다네.

사내가 품속에 꽃을 넣는다.
문득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소리 나는 이제 죽어요.

그 소리에 사내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귀신인가 헛것인가 허공을 훑는다.
더 이상 소리는 없다.

탕그랑—
이제 그만 내려가자고 소방울 소리만.

사내가 송아지를 데리고 산을 내려간다.
어쩌면
저 산 너머 어디에선가 또는 삼거리 어디에선가
젊은 처녀를 위한 회다지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어쩌면.

- 막이 내린다.